



##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빛물에 고여 더해만 가는 외로움 비워야 하나봐 한낮과 밤처럼 익숙할 때까지.  
파란새벽을 나비처럼 날아올라 새 하얀 달빛 아래서 긴 한숨은 잠든다.’

“많은 불자님들과  
만날 준비 되어있어요”

웅산, 1996년 1월 흥대 클럽 ‘씨티(thirty)’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재즈클럽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던 시절, 성남에 위치한 클럽 ‘음악마당’에 공연차 온 신관용·류복성 선생과의 만남이 재즈 인생의 서막이다. 이후 일본 재즈 팀(오모리 밴드)과 투어, 덴마크·핀란드·프랑스·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재즈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차근차근 내공을 다졌다. 그렇게 재즈를 시작하지 8년 만에 첫 데뷔앨범 ‘Love Letters’를 내놓는다. 현재 케이블방송 ‘리얼스토리 쇼(備)’ 진행자로 활동 중인 웅산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웅산밴드’ 신곡과 한국 4집 앨범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범평 웅산(雄山)처럼 쉽지만 정진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웅산의 첫 인상은 강했다. 짙은 눈 화장은 ‘친절한 웅산 씨’라는 애정처럼 세상에 대한 강한 홀로서기의 주문 같았다. 그러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너머의 진심은 진중하면서도 다정다감했다. 눈은 에너지의 저장고와 같다고 말하는 웅산의 눈망울은 선택했고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웅산은 고등학교 시절을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보냈다. 20년 전 일이다. 고요한 절에는 은하게 울리는 풍경소리가 좋았다. 그러나 고요함과 한적함 가운데 평온했던 그 마음을 세상이 다시 불러낸 것 또한 마음속으로 부터 끝없이 흘러 나오는 알 수 없는 울림이었다. 하다 못해 ‘관세음보살’을 정경하는 예불 시간에도 음을 실어 노래했다. 도반들은 그의 소리를 즐겨워했다. 음악에 대한 열망이 맹목적이었던 만큼 출가에 대한 미련을 접는 결단도 빨랐다.

“일본의 재즈문화는 생활 속에 보편화됐지요. 시골 휴게소에서 재즈가 흘러나와요. 한국 음악인으로서 바람이랄까, 재즈의 교감자원이네요. 재즈 불모지인 한국에서 재즈의 대중화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애환을 털어 놓으면서도 활짝 웃는 웅산의 미소 속에는 13년째 접어든 재즈 인생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오늘 무대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데, 재즈 마니아가 뽑아준 최고의 음악인으로 선정된 것도 그렇고 이번 무대에서 처음 만나는 연주자도 있거든요. 좋은 연주자와 함께 공연한다는 것은 뭐랄까 잘생긴 남자와 데이트 하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의 재즈문화는 생



재즈를 ‘허공으로 사라지는 음악’이라 했던가. 지그시 눈을 감고 리듬에 몸을 맡긴다. 공연장을 압도한 호흡소리는 심장의 비트에 메아리친다. 재즈 팬이 선정한 2008년 한국 최고의 보컬 부분 수상자로 선정된 웅산(雄山·36)의 목소리다. 감미로운 중저음의 블루스 톤으로 전하는 안개 빛 향기는 즉흥적인 재즈의 선율로 차아와 대화하며 무상(無常)의 공(空)을 전한다. 잿빛 도시의 우울함과 마주한 웅산의 매력을 6월 28일 ‘리더스폴(Readers Poll) 콘서트’ 현장에서 함께했다.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 완성했다. “정말 잘 해야겠다고 욕심냈을 때는 단 한 번도 좋은 음악이 나온 적 없었어요.” 매사 겸손한 그도 꿈에 대해서만은 욕심이 많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꾸준히 하다보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 꿈에는 어울리지 않음을 알았어요. 제 음악, 제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세상을 향해 서원한다. “음악을 하면서 존재감을 느낍니다. 불교는 해탈을 통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지요. 인간이기에 원했던 자유, 재즈 안에서 무한히 누리고 있습니다.”

웅산이 지난 시절 불교를 공부했고 지금 현재 음악을 하는 것도 모두 같은 하나의 길이였다. 분명한 것은 웅산은 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웅산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꿈꾸는 웅산, 그녀는 아름다웠다.

가연속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제공=이형우·2008 리더스폴세션

### tip> ‘2008리더스폴어워드’는...

재즈 팬 3000여 명이 참여해 무대에 오를 스타플레이어를 직접 선정한 것으로 현재 대중 인지도를 극명히 반영한다. LIG아트홀(대표이사 구자준)과 월간 ‘재즈피플(편집장 김광현)’이 주최하고 음악포털사이트 ‘벅스뮤직’이 공동 후원했다.



###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판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50cm  
(대)42×65cm

올마니반  
메홍축자  
60×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운이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8,000원  
→ 할인가 12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운이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승명화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민족의선 “열침”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복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옥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의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분신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승,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출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의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30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